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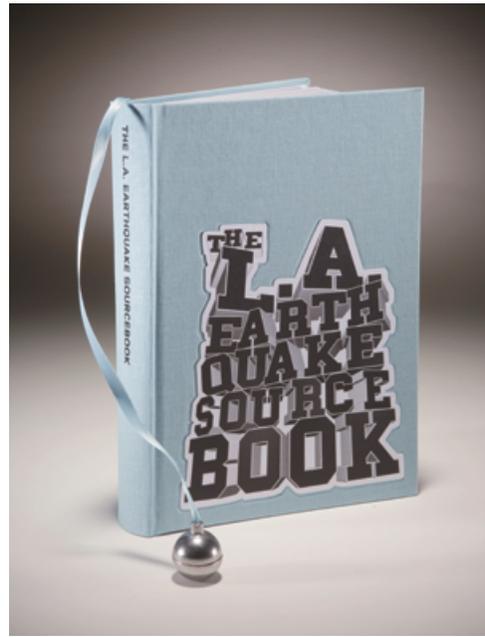
재난 시에 생명을 구하는 디자인

LA 지진: 즉각 대응 캠페인

일본 동북해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평소 지진에 대해 무심했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하며, 앞으로는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방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대규모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정도로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개개인과 각 가정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LA 지진 캠페인>의 메시지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아트센터 대학의 디자인 매터스*가 수십여 곳의 공공 및 사설 기관과 협동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다각적인 대처 방법이 이 즉각 대응 캠페인이다. 디자인 매터스는 아트센터의 부학장인 마리야나 아마틀로가 이끌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에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 및 개발 부문이다.

디자인 매터스는 샌 안드레아스 남부 단층에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캠페인을 구성했다. 과학자들은 그 같은 지진으로 사망자 1800명과 부상자 5만 명



1



2

- 1 《LA 지진 대응 자료집》, 제작: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구상: 리차드 코살렉과 마리야나 아마틀로, <LA 지진: 즉각 대응 캠페인>, 디자인 매터스,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미국, 2009. 윤곽체 평압인쇄, 브릴리언트 천 표지, 방울 달린 리본 끈 북마커
- 2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진행된 계몽 집회

그리고 2천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교와 기업체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주민 300여만 명이 이 캠페인의 시물레이션에 참여했다. 이들은 셰이크아웃.org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온라인에 올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트센터의 테오 알렉소폴로스 교수가 활력적이고 직접적인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단편 영화 <지금 준비하라>를 디자인하고 감독했다. 슈테판 자그마이스터가 디자인한 《LA 지진 대응 자료집》에는 지진의 과학과 지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예시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캠페인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열리는 계몽 집회와 <애프터 쇼크>라는 온라인 시물레이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래픽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분야를 망라한 기법이 발휘되었으며, 디자이너들이 대중 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 디자인 매터스는 현재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부학장인 마리야나 아마틀로에 의해 2001년에 공동 설립되었고, 아트센터의 학부와 대학원에 사회 변화에 대응할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http://designmattersatartcenter.org/>



3



4



5



6

3-6 《LA 지진 대응 자료집》의 앞뒤 표지 및 내용. 북 디자인: 슈테판 자그마이스터
Image Courtesy of Designmatters at ArtCenter College of Design, photocredit: Sean Donahue